

“할머니 웃으세요, 저희와 함께”

동광중 학생회 2011 강원교육대상 ‘행복교육부문’ 대상 ... 소망요양원 봉사활동·독거노인 6명 결연

동광중학교 학생회가 강원민방이 주최하고 강원도교육청이 후원한 ‘2011 강원교육대상’에서 행복교육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행복교육부문 대상은 지성과 인성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생회, 개성 있는 학급운영과 질 높은 수업방식으로 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인 교사를 치하하는 상이다.

동광중학교 학생회는 4년전부터 거진읍 석문리 소재 소망노인 전문요양원을 연간 2회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축제 때 발표한 공연을 선보이고, 축제 바자회에서 모은 성금으로 위문품을 마련해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바자회 성금으로 가슴기 2대를 기증



동광중 학생회의 봉사활동 모습. 사진 왼쪽부터 소망요양원 공연, 안마해드리기, 독거노인 가정방문 설겅이 하기.

하기도 했다. 학생회는 특히 올해부터는 ‘할머니 웃으세요, 저희와 함께’라는 주제로 이어진 일대 독거노인 6명과 결연을 맺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 방과후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르신들과의 첫 만남 때는 학생회 스스로 전교생에게 취지를

전달하고 성금을 모아 톨케익을 선물로 전달했으며, 어버이날과 추석 때는 카네이션과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다. 또 점심식사 챙겨드리기, 마당

털발 잡초 뽑아드리기, 청소해드리기, 말벗돼주기, 안마해드리기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친손자들처럼 든든한 힘이 돼주고 있다. 최광호 기자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대회 준비 ‘구슬땀’

고성군 장애인연합회 합창단 ... 25일 황성 개최 제9회 대회 참가

고성군 장애인연합회 합창단이 오는 25일 황성문화관에서 열리는 ‘제 9회 강원도 장애인 하나되기 합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각·농아·지체 장애인협회 회원들로 구성된 40여명의 합창단은 이번 대회 참가곡으로 지정곡은 바위섬을 자유곡은 새뫼금포타령을 준비해 고성군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에서 매주 2회 지휘자 이경미씨와 반주자 서정인씨의 지도아래 대회 준비에 막바지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경미씨와 반주자 서정인씨는 바쁜시간에도 불구하고 무료 봉사를

하고 있다. 고성군 장애인연합회 합창단은 제 7회 대회와 제8회 대회에서 각각 동상과 금상을 차지했으며, 단원들의 열정과 의욕으로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안금선 고성군 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이번에 군에서 단복을 지원하고 장애인협회 각 분과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회원들이 어려운 여건



고성군 장애인연합회 합창단 연습 모습.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하나 되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않는 꿈의 무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

제7회 어린이한마음 큰잔치 열려

새 시대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영유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7회 어린이한마음 큰잔치가 지난 15일 고성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고성군 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귀자)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고성지역 보육시설 원아 및 학부모, 보육종사자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족이 함께하는 어울마당과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어린이헌장 낭독, 개회사, 노래 및 율동 등의 기념식이 진행되고, 2부에서는 주제별 과학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열렸다. 3부에서는 캐릭터 공연, 행운권 추첨, 시상 등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원광연 기자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24]

독립운동가 권 종 해(權鍾海)

1869년 6월16일~1922년 2월 9일

의병장이며 다른 이름으로는 주성(周成), 호는 성파(桴波)이다. 자는 선명(宣明)이다. 『高城郡誌』에 의하며 고성군 간성(杆城)출신이라고 한다. 선생은 의병운동가 인규의 아들이다. 1906년 강릉 유립대표로 선정되어 성군관에 진정서를 내는 동시에 대동문우회 및 법부평의회에 고소하여 당시 친일군수 이재화와 친일거부 이근우, 조익환등에게 추방지시

를 내리도록 청하였다. 1907년 8월 정미의병이 봉기하자 거의를 다짐하고 원주진위대에 가서 민궁호, 이중희, 김덕제 등과 의병항쟁의 전략을 모의하는 한편, 관동일대에서 의병소모장이 되어 의병과 해산군을 모으는 동시에 인제의 운두령에서 왜병과 접전 끝에 대파하였다. 또 1908년 2월 이강년과 의진과 합류하여 동 4월 인제 백담사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으며 5월 정선국 북면 단림에서 적과 교전하였다. 그러자 6월 6일 왜병은 그의 본가에 침입하여 모친 김씨를 타살하고 차남 증수에게 총검으로 복부상을 입혔으며 가옥을 전소시켰다. 그리고 1909년 4월 양양으로 이진하여 활동중에 적의 밀정 김성서의 밀고로 적의 야습을 받아 크게 패전하였다.

선생은 1913년 서울의 김종익과 함께 의군부 조직에 참여하고, 그 유격장에 임명되어 의거를 준비하던 중 강원도 명주군 사천면의 장재호의 집에서 체포되어 10년형을 인도받고 옥고를 치른지 6년만에 출감하였다. 그후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강원도 충청북도 일대를 잠행하면서 무력항쟁을 책하다가

그간의 행적이 적에게 노출되어 다시 체포되었으며 끝내 무기형을 언도받고 투옥된지 4년이 되는 해에 옥사하였다. 이로써 관동의병의 선구자인 부친 권인규 그리고 그의 아들 기수, 증수와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독립운동사상 큰 업적을 남기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소은창의록(巢隱倡義錄), 권종해(權鍾海), 단행본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3권, p.p.3~4 △독립유공자인물록(국가보훈처, p.1,483)

〈고성향토문화연구회〉 (010-5373-2156)